



인도 KI hi-tech, 코닥 넥스프레스로 보안카드 완벽 대응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KI hi-tech(대표 Srinivasa Rao)는 보안 인쇄를 전문업체다. 코닥 'D'(흑백) 헤드 시리즈 등 코닥 버사마크를 포함해 많은 디지털 흑백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2100 Sclassic과 함께 코닥 넥스프레스 SE3600을 도입하는 등 현재까지 3대의 넥스프레스를 도입했다.

자료 제공 | 한국코닥

보안인쇄시장 선도하는 KI hi-tech

KI hi-tech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한다는 사명을 갖고 전세계 보안 인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코닥을 포함해 최첨단 인쇄 기술을 사용해 보안 인쇄를 하고 있다. ISO9001 인증으로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KI hi-tech는 우수한 추적 기록장치를 인쇄하고 다양한 종류의 보안 및 기밀작업을 취급한다. 한 사이트에서 한 달에 1백만부를 인쇄할 수 있다.

인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고객들을 만족시키며, 민간 및 공공 부문 은행, 통신사, 교육 기관, 선거 위원회의 기밀문서 및 보안이 필요한 대량 인쇄 수요를 엔드 투 엔드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작업 품목은 비즈니스폼, 가변데이터 인쇄, 플라스틱 카드, 스크래치 카드, 자기앞수표, 투표용지, 복권 티켓 및 소비세 스탬프 등이다.

사전 인쇄 용지를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위에 가변데이터를 인쇄하고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구독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일, 다양한 종류의 보안 문서 인쇄, 투표 용지와 기타 기밀 문서를 인쇄하는 일을 한다.

회사는 전 세계 각기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적기에 배송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다양한 수상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기회를 살피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다.

코닥과 KI hi-tech는 Aadhaar 카드 프로젝트의 사전 입찰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며 진행했다.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잘 진행됐으며 처음으로 110일 안에 3600만장의 카드 인쇄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3달간 A3용지 800만장에 4색 인쇄를 하는 것과 같은 양이다.

이는 KI hi-tech뿐만 아니라 넥스프레스와 코닥 서비스팀에도 엄청난 성과였다. Srinivasa Rao 사장은 "넥스프레스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동됐으며(정규 유지/ORC 교체 제외), 현장에서 코닥 DPS 서

비스팀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닥이 KI hi-tech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다

Roa 사장은 "고품질의 컬러 인쇄, 비용 효율적이며 생산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는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넥스프레스의 큰 이미징 영역으로 KI hi-tech는 경쟁사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신분증을 인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더 나은 생산성과 출력률이 합쳐져 코닥은 더 나은 ORC를 제공했다. 설치 전과 후에 코닥이 제공한 훌륭한 서비스 또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넥스프레스, 오프셋 수준의 디지털 장비

Aadhaar 카드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KI hi-tech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강력한 장비를 원했다. 회사는 매일 50만장의 Aadhaar 카드를 제작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가동할 수 있는 강력하고 내구성이 좋은 장비가 필요했다. Rao 사장은 "우리는 시장에 있는 모든 장비의 가능성을 살펴봤다. 그 중 넥스프레스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가장 튼튼한 장비였다. 또한 시장의 어떤 장비보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장비였다"고 말했다.

Rao 사장은 "디지털 장비는 오프셋인쇄기만큼 튼튼하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출시된 모든 디지털 장비들 중 넥스프레스가 가장 튼튼한 것으로 판명됐다. 다른 디지털 장비들은 사무기기에 더 가까웠다. 넥스프레스만이 오프셋 장비 수준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디지털 장비였다. 우리가 선택한 넥스프레스가 최고의 장비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카드 프로젝트는 향후 2년 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의 넥스프레스는 Aadhaar 카드 프로젝트와 유사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Rao 사장은 "우리는 국내외의 스마트 카드 인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넥스프레스는 장기간의 운영과 훌륭한 서비스 지원 및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장비"라고 설명했다. ☞